

모바일게임 개발 · 서비스 협력체제 활발 솔루션업체와 콘텐츠개발사 간 윈윈전략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와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기있는 온라인게임을 모바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계사들이 협력, 공동투자 등을 하고 있는 것. 신지소프트와 CJ인터넷, 소프트맥스와 엠조이넷은 지난달 협력을 맺으며 윈윈전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지소프트-CJ인터넷, '서든어택' 등 모바일게임 제작 공동 투자



신지소프트(www.sinjssoft.com, 대표 최충엽)가 CJ인터넷(www.cjinternet.com, 대표 정영종)과 모바일게임 개발에 공동 투자한다. 무선인터넷솔루션 개발업체인 신지소프트는 CJ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CJ인터넷의 온라인게임 '서든어택'과 '마구마구'를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하는데 양사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2월 14일 밝혔다.

콘텐츠개발사의 유망한 게임콘텐츠 개발에 잇따라 투자하여 해당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쾌거를 올렸던 신지소프트가 이제는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의 대표주자 CJ인터넷과 손잡고 온라인게임의 모바일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신지소프트의 모바일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는 이번이 6번째로, 관련업계에서는 신지소프트의 꾸준한 개발비 지원에 대해 솔루션업체와 콘텐츠개발사 간의 모범적인 윈윈전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서든어택'과 '마구마구' 두 게임 모두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든어택'은 CJ인터넷이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 중인 FPS(인칭슈팅게임)으로 현재 동시접속자 수 7만명을 넘어서는 인기 게임으로 부상해 있다. 앞으로 개발될 '서든어택 모바일'은 그래픽 효과의 차이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19세 이용가를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며,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 모드와 아간 모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더욱이 실제 멀티플레이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모바일게임 최초로 아군 AI(인공지능)와 적군 AI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투자대상인 '마구마구 모바일'은 실제 야구와 마구 등의 특수 기술야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야구게임이다. 모바일만의 리그전 모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황별로 별도의 비주얼 효과를 추가할 방침이다.

신지소프트 최충엽 대표는 "이번 투자는 국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과의 윈윈모델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재미있는 요소를 모바일에서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온라인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모바일시장으로 유입되어 모바일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지소프트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오스큐브의 '북천항해기', 케이넷피의 '수호지무쌍전', 핑거스의 '메탈 그레이브',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베틀 모바일', 모바일INK의 '두근두근작업중' 등 지넥스 기반의 모바일게임 제작에 잇따라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소프트맥스-엠조이넷,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맥스(www.softmax.co.kr, 대표 정영희)는 지난 2월 8일 모바일게임 전문업체 엠조이넷(www.mjoynet.com, 대표 강신혁)과 자사가 개발한 PC 패키지 게임 '창세기전3 PART1'의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사는 올 하반기부터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창세기전3(가칭)'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며 향후에도 모바일게임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누적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며 국내 PC 패키지 게임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던 창세기전 시리즈는 총 3개의 시리즈와 2개의 외전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창세기전3'는 창세기전 시리즈의 최종 완결편으로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한편, 엠조이넷은 지난해 PC패키지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시리즈로 개발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소프트맥스는 모바일 RPG '창세기전:크로우' 시리즈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컴퓨터 등 국내 대표적 IT기업 '의료IT솔루션' 국내 병원에 공동 공급

비트컴퓨터 등 국내 주요 IT 업체 8곳이 국내 병원 등에 의료용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비트컴퓨터를 비롯해 인텔코리아, 한국HP, 한국오라클, 사만텍코리아,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중외정보기술,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등 8개사는 의료용 솔루션을 공동 출시하고 이 상품의 마케팅, 영업, 기술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솔루션은 비트컴퓨터, 중외정보기술, 지이헬스케어 3개사가 갖고 있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바탕으로 인텔 플랫폼 기반의 HP 솔루션, 사만텍의 보안 서비스와 시스코의 네트워크 기술 등을 더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이들 업체는 설명했다.

이번 의료용 솔루션과 관련해 8개사는 '헬스케어 코리아 포럼' (www.healthcarekorea.com)을 결성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씨안에스 DMB칩, '에쿠스'용 단말기 2월부터 탑재



세계적으로 IT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DMB용 단말기가 기본 장착된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본격 생산, 시판된다.

멀티미디어 방송·통신

토털솔루션 업체인 씨안에스테크놀로지 (www.cnstec.com, 대표 서승도)는 현대기아차가 2월부터 생산하는 에쿠스에 기본 내장된 지상파 DMB단말기에 자사의 멀티미디어 칩이 탑재되었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이번에 생산되는 에쿠스에 장착된 지상파 DMB 단말기는 씨안에스가 개발한 DMB전용 멀티미디어 칩인 '넵툰'이 탑재된 단말기로서 양사는 지난해 2월 씨안에스가 개발한 DMB용 멀티미디어 처리칩 및 이를 활용한 현대 차량 탑재용 DMB솔루션제품화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 방송이 시작된 지상파 DMB서비스에 발맞춰 씨안에스의 DMB용 칩 및 솔루션 기술과 현대기아차의 차량 관리 연구개발 경험을 상호 활용하여 제품의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 및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완성 차량에 본격 장착하게 되었다.

에쿠스에 내장되는 DMB단말기에 적용된 '넵툰'

칩은 시속 150km이상의 고속에서도 인방의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TV화면을 제공해주는 DMB용 전용 칩으로 씨안에스가 지난해 하드웨어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다.

이 칩은 기존 소프트웨어적 처리 기술방식에 비해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최적의 DMB용 토털솔루션을 칩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세트업체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발열, 온도, 진동 등 자동차와 같은 산업용 제품에도 완벽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고성능의 멀티미디어 칩과 세계적인 차량 기술이 결합된 완성차가 본격 생산됨으로써 한국 자동차의 기능과 품질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2월부터 DMB단말기를 기본 장착한 에쿠스를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하여 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DMB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는 추이에 따라 글로벌 마케팅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안에스테크놀로지 서승도 대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준비중인 디지털 이동방송 서비스에 맞춰 중국, 유럽 등지의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마케팅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과학, '뿌리중국어' 개발



언어교육 전문기업 언어과학(www.eoneo.co.kr, 대표 정도상)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어 성조, 발음, 회화에 대한 교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국어 발음·회화 학습 솔루션 '뿌리중국어'를 내놓았다.

뿌리중국어는 기존 수동적인 학습방법과는 달리 얼마든지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듣는 연습을 반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반 솔루션으로 크게 '발음학습'과 '회화학습'으로 구성된다.

발음학습에서는 성조·성모·운모별 표준 발음법을 학습하고, 학습자가 중국어 발음을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다. 이때 중국어음성인식엔진을 통해 학습자의 틀린 발음이나 성조를 지적하고, 올바른 발음과 성조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정 정보를 제시해 준다.

'회화학습'은 도서출판 넥서스의 실용 회화 교재를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실용 회화 학습을 지원한다. 회화뿐만 아니라 어휘, 어법, 기본 문형, 한자 문화 등에 대해서도 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렸다. 지문 듣기, 따라 하기, 원어민과의 Role-Playing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역량·유창성·정확성 분석 평가가 제공된다.

언어과학은 3월부터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뿌리차이나'(www.ppurichina.com)를 열 계획이며 정식 오픈에 앞서 2월 한 달간 무료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벤처 제품 · 기술 세계가 주목 이미지 제고, 판로개척 성과 잇따라

퓨처시스템 '리노게이트'



정보보호전문업체 퓨처시스템(www.future.co.kr, 대표 김광태)은 자사의 소호용 제품인 리노게이트(RenoGate)와 와이어스피드(Wire Speed)의 성능으로 미국 평가인증기관인 톨리그룹의 업투스펙(Up-To-Spec)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리노게이트'는 퓨처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SoC(Systems On a Chip) 'FSC 2003'을 적용한 저가형 네트워크 보안 게이트웨이로 국내 BcN(광대역통합망)과 같은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속도저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톨리그룹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공동으로 진행한 테스트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리노게이트'는 패킷(Packet) 크기와 적용 룰(Role) 수에 상관없이 방화벽에서 200Mbps, VPN은 3DES 및 SEED를 적용하였을 때 최대 1922Mbps로 기존의 소호용 네트워크 보안장비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성능을 보였다.

퓨처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리노게이트'와 같은 저가형 고성능 게이트웨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

공하는 FTTH(가정내광가입자망 · Fiber To The Home) 가입 세대 수가 현재 400만이며, 2010년에는 1488만, 시장규모 6483억엔(한화 약 5조 5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광태 대표는 "이번 톨리그룹(The Tolly Group) 테스트를 통해 퓨처시스템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값싸고 고속의 성능을 발휘하는 SoC FSC2003을 소호용 보안 제품은 물론 홈게이트웨이와 같은 장비에 확대 적용하여 국내외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핸들러월드 '로직파워플러스'



핸들러월드(www.handlerworld.co.kr, 대표 이동인)는 기존에 상용화된 장비 대비 생산성이 약 30% 높은 세계 최고속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전용 테스트핸들러 '로직파워플러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로직파워플러스'는 인덱스 타임이 0.27초로 현재 상용화된 최고 속도인 0.38초에 비해 0.11초나 짧아 테스터 가동률을 30%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인 대표는 "비메모리 테스트핸들러는 일본의 사이닉스, 엡슨, 국내 핸들러 월드가 속도를 높고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이 상용화한 최고속 장비의 평균 인덱스 타임은 0.36~0.50초 수준으로 당사가 개발한 제품보다 떨어진다"며 핸들러월드 기술력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핸들러월드의 테스터기는 반도체 생산 마지막 공정에 전기적 특성 및 성능을 자동 검사하는 장치로 테스트핸들러와 메인테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인덱스 타임이 최고 0.45초인 기존 모델 '로직파워 2'를 필두로 국내 비메모리용 테스트핸들러 업계에서 해외제품들을 제치고 판매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새로운 프론티어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System LSI 분야 설비로는 국내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는 어떤 업체들의 제품보다 월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동인 대표는 "해외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순수 국산의 강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품을 출시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엠텍 '휴대폰 단말기'

유럽형 휴대폰 단말기(GSM) 전문업체인 이지엠텍(www.ezzemobile.com, 대표 김동필)은 중국 휴대폰 제조개발사인 말라타모바일과 50만대 규모의 휴대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지엠텍은 이번 계약으로 말라타모바일에 휴대폰 5종 총 50만대를 ODM(제조사설계생산) 방식



으로 제작해 2006년 한 해 동안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휴대폰은 슬림폴더형 모델인 SL308, 슬림슬라이드형 모델인 SL900 등 총 5개의 모델이다.

말라타모바일은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인 말라타그룹의 휴대폰

전문 제조개발 자회사로서 중국 전역에 3000여 개의 모바일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저택과 말라타모바일은 이번에 수출되는 휴대폰이 MP3플레이어 기능과 블루투스 등 젊은 층이 좋아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고 슬림한 디자인이어서 중국의 청년 소비자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필 대표는 “현지 마케팅 전문회사와 제휴해 소비자 취향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현지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중국에 공급하는 50만대를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올 예상 매출 1억 5천만달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스코조명 '에스코 센서램프'

조명기구 전문 벤처기업 에스코조명(www.escolighting.co.kr, 대표 황운규)이 지난 2002년말 개발한 안정기내장형실시간센서램프 '에스코 센서램프'의 세계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발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유럽 터키에 6만달



리규모의 첫 수출에 성공해 터키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중동 등 전 세계 지역에 걸쳐 수출협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명기구 도매상은 물론 관공서, 대형 빌딩, 건설회사 등 전력소모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국내 영업도 시작했다.

'에스코 센서램프'는 PCT국제특허와 실용신안, 유럽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 전자 안정기와 실시간 열적외선 센서모듈이 장착돼 있는 에너지절약형 형광램프로, 사람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점등이 유지되고 없을 때는 자동 소등되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은 인체감지후 점등된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돼 다시 감지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에스코 센서램프'는 황운규 대표가 명지전문대학과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지난 2002년 말 개발했다.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조명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양산 준비작업 끝에 최근 본격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황운규 대표는 “올해 미국 전역에 센서램프의 독점판매권을 달라는 바이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해외수출이 계획대로 된다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성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으로 영입 하이닉스 상무 출신 안동준 박사

반도체 및 LCD 핵심 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국내외 영업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출신인 안동준 박사를 총괄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 25년간 몸담은 바 있는 안동준 수석부사장은 주성엔지니어링 영업부문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된다. 안수석부사장은 지난 198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현 전자통신 연구소) 근무를 시작으로 하이닉스 연구소 공정 개발 총괄이사, 생산기술센터장을 역임한 엔지니어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이다.

주성엔지니어링 측은 안수석부사장의 영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향후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신규 고객 창출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수석부사장은 “벤처의 초심과 시장에 대한 야생성을 잃지 않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로제닉스 김경수 대표 세계적 인명정보기관 임원 잇단 파선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 카이로제닉스의 김경수 대표가 최근 세계 유명 인명정보기관의 부총재로 잇따라 임명됐다.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기관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CO)는 최근 김 박사를 종신



부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대표는 ICO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대표는 또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정보기관인 미국인명연구소 연구협회(ABIRA) 부총재로 선임됐다. 이에 앞서 영국 국제인명센터(ICO)로부터 '21세기의 뛰어난 과학자 2000인'과 '21세기의 뛰어난 지식인 2000인'에 각각 등재되는 등 작년 한해만 20여 건의 인명사전 등재와 수상을 기록했다.

인성정보, 대신증권 IP기반 차기콜센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수주

IT전문종합기업 인성정보(www.insunginfo.co.kr, 대표 원종윤)가 대신증권(www.daishin.co.kr, 대표 김대송)에 IP환경을 기반으로 한 차기 콜센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신증권은 기존 콜센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

상을 위해 IP기반 컨택센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대신증권 콜센터 구축사업은 시스코의 IP컨택센터(IP Contact Center, IPCC) 솔루션으로 이달부터 구축된다.

인성정보는 기존 노후된 콜센터 시스템의 개선과 상담원 애플리케이션 재구축, WFMS(Work Force Management System)도입을 통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능력을 강화시키고 전화, ARS, e-mail, Web, SMS, FAX 등 다양한 채널의 통합을 통해 고객접점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 PC 원격제어 기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IP-IVR 기술을 이용한 안정적인 ARS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시스템 대비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 측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태평양제약과 라이선싱 및 공동개발계약

바이오코리아(대표 이영성)는 태평양제약(대표 이우영)과 지난 2월 24일 간보호제 및 간염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싱 및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추후 협의를 통해 바이오코리아가 확보한 C형 간염치료제에 대한 특허 전용권(실시) 및 공동개발, 해외시장 진출도 함께 개척하기로 하였다.

바이오코리아가 확보한 C형 간염치료제 물질(HEPA-C)은 한국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와 경구제제(Ora)로 공동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코리아는 2007년 국내에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C형간염환자는 국내에 45만명 정도로 계

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억 7000만명이 감염된 것으로 WHO가 보고하고 있으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 및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HCV(C형 간염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 비용은 2019년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커뮤니티, 온라인게임 '하늘섬' 테스트 진행



시선커뮤니티(www.csun.co.kr, 대표 김학균)는 천상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온라인 게임 'SkyOnline 하늘섬' (이하 하늘섬)의 3차 Close Test를 3월 3일부터 2주간 8천명의 테스터와 함께 진행한다. 하늘섬은 시선커뮤니티의 첫 온라인 게임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늘나라 이야기를 감쪽한 캐릭터로 표현한 RPG로 지난해 10월 1차 Close Test를 시작으로 유저에게 공개된 바 있다. 이번 3차 테스트에서는 지난 2차 테스트에서 유저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퀘스트와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시스템이 게임 내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각 마을을 대표하는 지신 선거 시스템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인식기술, 저가형 디지털 명함자동정리기 출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한국인식기술(www.hiname.net, 대표 송은숙)은 기존의 디지털 명함자동정리기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Hi-Name 3.0 Lite' 버전을 출시했다고 지난 2월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명함첩 10권 분량을 정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문자서비스(SMS)전송을 비롯해 인쇄기능, 지도검색, 엑셀파일과의 연동 등 다양한 기능



을 지원한다. 회사 측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할인 매장이나 전자제품 매장, 백화점, 대형 서점, 문구점, 각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

송은숙 대표는 "이번 Lite 버전 출시로 디지털 명함자동정리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등 대중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빌, GS25 편의점과 업무 제휴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업체 게임빌(www.gamebil.com, 대표 송병준)은 국내 최고 편의점 GS25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www.gsbil.com 대표 허승조)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2월 12일 게임빌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앞으로 공동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로써 게임빌의 유명 게임 '농투', '물가에돌탕기' 등을 전국 2200여 개 GS25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첫번째 행사로, 3월 2일까지 편의점 전용 상품 이벤트를 마련한다. GS25에서 전용상품 26가지(소프트드링크 9가지, 스낵 17가지)를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응모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 1000매(1인 2매) 및 모바일게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기업과의 업무제휴로 글로벌화 시도

한글과컴퓨터, 오피스와 리눅스로 글로벌 SW회사로 도약 추진



토종 소프트웨어회사인 한글과컴퓨터(www.hansoft.com, 대표 백종진, 이하 한컴)가 지속적인 해외진출로 자사 SW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던 토종 SW 회사들의 한계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한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피스'와 '리눅스'로 있던 해외진출 계약이나 MOU를 맺는 등 SW의 해외 판매 노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컴은 지난해 12월 해외 공략용 SW인 'Thinkfree Office'를 일본의 대형 ASP사인 SoftBank BB社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한-중-일 리눅스 컨소시엄인 '아시아눅스'의 나스닥 진출을 위한 법인(아시아눅스 코퍼레이

션) 설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2월 6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저스트시스템(Justsystem)과 한컴의 오피스 SW인 '한컴 슬라이드'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매월 1건씩 해외 성과를 내놓는 등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저스트시스템과의 제휴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양사가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협력해서 양사의 제품을 한국과 일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대표는 "이번 계약은 일본에서 수개월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은 '한컴슬라이드'가 SW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스트시스템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올해는 세계시장을 공략해 한컴이 글로벌 SW회사로 도약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과내일
LANDesk Software社와 채널파트너 계약
네트 워크서 비스 전문 기업 오늘과내일(www.tt.co.kr, 대표 이인우)이 세계적 솔루션 업체인 LANDesk Software社와 채널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오늘과내일 마케팅 관계자는 "LANDesk 솔루션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컨택센터를 원격지에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장애해결 및 업데이트, 재고관리 등의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며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DC(호스팅, 코로케이션 등) 고객을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공용전센터 고객에도 제공, 판매할 예정으로 고객사들이 원격에서 서버관리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보험사, 은행사, 대기업, 지방 교육청 등 점차 영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과내일은 Microsoft社, MSI社, SUN社, Intel社, Fujitsu社 등 많은 업체와 마케팅 파트너로서 현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문 회장, '美 존경받는 사업가'에 선정



재미동포 이종문 엠백스벤처그룹 회장이 새너제이 아시아 법률 연합(ALA)이 지난 2월 21일 발표한 '올해의 존경받는 사업가'에 선정됐다. ALA는 1977년 법조인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법률기관이다. 이 회장은 30년 가까이 샌디클라라 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며 소수민족의 인권 보호와 권리 향상에 주력해 왔다. 또한, 동포사회와 밀접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많은 도움을 줬다. 그는 불법 영주권 취득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동포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은 오는 3월10일 새너제이 피어몬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선정한 '2005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으며, 지난 2월 15일 스탠포드 공대에서 공과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회장은 1970년 도미해 1982년 다이아몬드 컴퓨터시스템을 설립해 실리콘밸리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1995년 나스닥에 입성하고 엠백스벤처그룹을 설립하는 등 미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아시아 기업인으로 꼽힌다. 그는 종근당을 창업한 고 이종근 회장의 친동생이다.